

벼랑끝에 선 과학·수학 교육

- 일 시: 2014년 6월 10일 (화), 10:00
- 장 소: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

- 초청의 말씀 -

한림원은 2013년도 7월에 개최한 제 71회 한림원탁토론회 (대학입시 문·이과 통합, 핵심쟁점과 향후 과제는?)를 개최하여 문·이과 통합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 최근에 현 정부는 문과와 이과의 칸막이를 없애면서 대입전형 간소화와 수험생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2017년부터 수능의 방향 및 고교교과 과정을 대폭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

정부의 대입제도의 개선안은 문이과를 통합하여 과학기술의 창조적 능력을 기반으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두루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 그러나, 최근의 교과과정 개정작업 동향을 살펴보면, 문이과 통합을 빌미로 과학·수학의 필수 이수시간이 축소됨으로써 향후 이에 따른 과학·수학교육의 위기가 예상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

이에 우리 한림원은 제 78회 한림원탁토론회 ‘벼랑 끝에 선 과학수학교육’을 개최하여 과학수학교육의 근간을 바로하기 위하여, 현 교육제도의 걸림돌을 분석하고, 과학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오니, 바쁘시더라도 꼭 왕림하셔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본 원탁토론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「한림원의 목소리」로 발표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

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박 성 현

09:30 - 10:00	등 록
10:00 - 10:10	개 회
10:10 - 10:50	주제발표 1 과학·수학 교육의 현황 및 전망 정 진 수 (한국과학창의재단 융합과학교육단 단장) 주제발표 2 문·이과통합교과과정과 대학입시 배 영 찬 (한양대학교 입학처 처장)
10:50 - 12:00	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토론좌장 이 영 백 (과학수학교육위원회 위원장, 한양대학교 교수) 토론자 박 제 윤 (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) 장 석 영 (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 국장) 심 재 역 (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) 김 도 한 (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, 서울대학교 교수) 박 선 중 (분당중양고등학교 교장)
12:00 -	폐 회 (중식)

■ 행사장안내



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전화 : (02)2001-7651

문의처 TEL: 031-710-4611 FAX: 031-726-7909 E-mail: jyja04@kast.or.kr
<행사준비를 위하여 6월 5일 (목) 15시까지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>